

國會圖書館의 書誌活動

鄭 炳 洸

(國會圖書館司書局)

「科學과 政府와 情報」란 題目으로 報告書를 提出한 美國大統領科學諮問委員會(Report of the President's Science Advisory Committee, 1963)에서 情報問題의 本質에 關하여 論하기를

“科學諸分野의 一元化는 文獻의 集大成에서만 健全하게 成長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文獻量의 엄청난 增加로 因하여 科學이 一元化되지 못하고 同一研究의 重複, 심하면 科學이 점차 細分됨에 따라 同一한 性格의 細分野가 마치 別個의 것처럼 亂立할 危險性이 있다. 이것이 바로 文獻洪水 속에서 科學이 直面하고 있는 “危機”의 要因으로서 解決되어야 할 焦點이다”라고 勸告하고 있으며, 이 報告書에 對하여 美國大統領도 “本報告書가 指摘한 바와 같이 強力한 科學技術은 國家的要請이고 健全한 情報流通體制는 強力한 科學技術의 必須前提條件이다”라고 致辭하고 있다.

위에서 論議된 問題들은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比단 科學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全 學界와 研究機關에 걸쳐 가장 時急하고 重要한 問題인 것이다.

學界의 安定에 따른 活潑한 第2次 文獻作業=書誌作業이야말로 現在 우리 나라 學界에서 가장 時急하게 要求되고 充足되어야 할 問題임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書誌作業이란 所謂 第二次刊行物, 二次情報源에 關한 일이며 圖書나 定刊物等 一次情報源을 直接 利用하기 위한 媒介物의 作成과 情報提供 即 Information Service 가 그 主要業務인 것이다.

書誌作業에 對한 國際的인 會晤으로서 1950年 11月 유네스코本部에서 開催된 「國際書誌奉仕改良會議」의 要旨에 依하면

「世界的으로 莫大한 量에 達한 記錄資料 및 非記錄資料에 對하여 有効한 書誌奉仕가 결핍되고 그 결핍이 가져오는 各種 人間的 努力部分에 있어서의 勞力의 重複을 덜기 위하여 可能하면 國際的인 規約下에 有効하고 統一性 있는 書誌活動을 行함을 目的으로 하여 그 前提로서 우선 加盟國 各自가 自國內에 있어서의 書誌業務의 完成에의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또 National Libraries: their problems and prospects. (Unesco manuals for libraries —11)의

冊子로 出版된 1958年 9月 Symposium on national libraries in Europe, Vienna, 8~27 Sep. 1958. Unesco, 1960의 結果 書誌活動에 對한 유네스코의 決議와 勸告에 依하면

〔書誌〕

國立圖書館은 그 나라의 書誌奉仕에 對한 責任을 갖고 있다. 國立圖書館은 書誌活動을 調整하고 書誌基準을 確立하여 書誌作成者 養成方案을 提案하고 書誌業務가 滿足할만한 狀態로서 가장 適合한 機關에서 行하여지고 있나를 檢討하여야 한다.

國立圖書館은 모든 書誌情報源에 關한 完全하고 正確한 知識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專門情報源의 案內書를 刊行하든가 또는 刊行을 獎勵하여 國內의 他圖書館이 編纂한 書誌의 中央登錄을 實現할 可能性에 對하여 檢討하여야 한다. 個人과 機關에 對하여 書誌정보를 提供하는 것은 國立圖書館의 本質的 機能의 하나이며 情報는 商業의 目的을 위하여 要求되었을 경우를 除外하고는 原則的으로 無料로서 提供되어야 한다.

各國立圖書館은 所有하는 未刊書誌 물에 關한 情報를 定期的으로 交換하고 自國의 書誌活動報告를 國際書誌專門誌에 發表하며, 外國의 書誌活動을 自國의 專門誌에 報告하여야 한다.

各國立圖書館은 國際的인 書誌活動에 있어 建設的인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2個國間的 協定에 依하여 自國에 關한 資料에 對한 書誌정보의 蒐集을 促進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註: 여기에서 國立圖書館이란 National Library를 말한다.

흔히들 「國會圖書館은 國會에 對한다」고들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생각들은 너무나 좁은 視點이라고 생각한다. 國會圖書館法 第2條(任務)에 依하면 「國會圖書館은 圖書 및 其他 圖書館資料를 蒐集하여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함과 同時에 圖書館奉仕를 함을 그 任務로 한다」고 되어 있다.

主權在民의 오늘날 國民의 代表者인 國會議員의 職

務遂行에資하기 위한國會圖書館奉仕야말로全國民에對한奉仕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國會圖書館은 첫째로國會議員들을 위하여全力을 다하여야 함은 두말할 것 없다. 그러므로國會圖書館으로서는國會議員들을 위하여 行政府 各部에서의 文獻資料에 의한 調査와 參考資料의 奉仕를 해야 하는 것이 重要한 하나의 任務인 것이다.

現在國會圖書館은 法定納本制의 實施에 依하여 國內出版物은 總망라 收書되고 있으므로 國家的인 資料源이며 Information center로서의 責務를 지니게끔 規定지워졌으며 이 納本制度에 依한 國內資料의 收書와 國際交換業務에 依한 活潑한 外國資料의 收書等은 지금國會圖書館이 計劃하고 있는 中央目錄作業으로서의 印刷目錄作成 配布와 政府諸機關 및 他圖書館과의 相互貸借制度의 確立과 近代的인 施設을 갖춘 文獻複寫 서비스, 調査研究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가져 國內의 他圖書館에 比하여 強力한 Reference Staff를 가진 有力한 調査能力의 保持等으로國會圖書館은 現在 比단 國會議員들의 資料活動에 資함 以上으로 國家的인 圖書館資料奉仕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전지에서 볼때「國會圖書館은國會에對한다」는 생각만은 잘 못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國會圖書館은 어디까지나 國家가 設立主體인「國立」國會圖書館(National Assembly Library)인 것이다.

國會圖書館은 지금 우리 나라의 書誌活動의 重要한 一面을 장악하고 있으며 將來에 對한 書誌計劃도 國家的인 圖書館의 立場으로서 立案하여 長期的인 書誌計劃을 세워 研究檢討하고 있다. 國家的인 見地에서 어떠한 書誌計劃을 세우느냐의 必要性은 우선 어느 他機關들에서 어떠한 書誌計劃을 세우고 있으나를 客觀的으로 調査分析하지 않으면 안되며 書誌 作成者와 圖書館員, 學者間의 協力は 恒常 이루어져야 함은 勿論이다.

1950年 파리의 유네스코 本部에서 開催된「國際書誌 서비스 改良會議」의 最終決議文中에서 全國書誌奉仕活動에 關한 事項을 살펴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書誌의 出版物;

- 1) 全國書誌의 作成
- 2) 總合目錄의 作成
- 3) 主題別書誌의 作成
- 4) 定刊物 및 新聞記事索引의 作成
- 5) 各種抄錄의 作成
- 6) 各種便覽의 作成
- 7) 學門分野의 主題別研究者, 研究題目一覽의 作成
- 8) 地圖, 樂譜 및 視聽覺資料의 書誌作成

以上 바람직한 여러 가지 書誌活動事業中에서 現在

國會圖書館이 이미 刊行하였거나 刊行 및 編輯作業이 進行中인 事業들을 추려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國內刊行物記事索引

1964年創刊 季刊 四六倍判

前身은 韓國圖書館協會編「學術雜誌索引」으로서 主題名表에 依하여 分類 配列된 國內刊行物記事索引誌이며 收錄學術誌는 約 350種. 附錄으로서 著者索引, 主題名參照索引, 收錄雜誌名一覽表가 첨가되고 있다. 1963, 1964年度分은 年刊으로 刊行

2) 英文雜誌索引 <An Index to English Language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1890—1940>

1965年 12月 菊判

1890年~1940年間 韓國에서 發行된 英文定刊物 記事總索引誌로서 收錄誌는 Transaction of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Korea Branch, The Korean Mission Field 등 10個誌. 主題名, 著者名, 記事의 ABC順 排列로 되어 있다.

3) 韓國新聞·雜誌總目錄

1966年 4月刊 菊判

1883年~1945年間에 國內外에서 刊行된 韓國의 新聞·雜誌總目錄으로서 第Ⅰ部(國內雜誌目錄), 第Ⅱ部(國外刊雜誌目錄), 第Ⅲ部(新聞目錄), 第Ⅳ部(年表)로 構成되었으며 收錄誌總數는 約 1,150種이다.

4) 政府刊行物目錄

1966年 4月刊 四六倍判

1948年~1965年間에 걸친 行政府·司法府·立法府 및 國營企業體와 各銀行의 刊行物總目錄으로서 發行部數와 發行年月日이 記載되어 있으며 各部處別로 區分되고 있다.

5) 國內學術 및 研究團體便覽

1966年 5月刊 四六判

1965年末 現在 國內의 學術研究團體 98個處의 研究目的, 研究業績, 任員 및 刊行物等을 소개하고 있다.

6) 越南關係記事目錄

1966年 8月刊 曆寫判

7) 「開關」誌總目次

1966年 11月刊 四六判

1920年 6月 25日 創刊臨時號를 發行하여 1926년까지 7年間 發行하면서 販賣禁止 34回, 停刊 1回, 罪金 1回의 處分을 당하고 만찰내 通卷 72號로서 發行禁止를 당하였으며 解放後 1946年 復刊新年號

를 通卷 73號로 發行하였으나 1949年 3月 25日 通卷 81號로 廢刊된 「開關」誌의 總目次이다. 第1回 「雜誌의 날」을 記念하여 發刊됨.

8) 韓國古書總目錄

未刊 四六倍判 上·下卷

우리 나라의 國家總書目이라고 할 수 있으며 收錄古書總數는 약 18,000種으로서 자세한 書誌事項과 所藏館名이 表示되고 있으며 著者, 書名索引이 作成되고 있다.

9) 韓國外交文書總索引

未刊

10) 國際學術團體總便覽

未刊

全學問에 걸친 國際學術 및 研究團體의 團體名, 所在地, 沿革, 目的, 加盟國名 및 加盟團體名, 組織, 任員, 財政, 會議等を 記載하고 있으며 非政府團體와 政府團體로 區分되고 다시 人文, 政·法, 理工, 醫學等 部門으로 다시 區分하고 收錄團體數는 약 180個團體. 附錄으로 歐文團體名索引이 있다.

11) 外國學術雜誌綜合目錄

未刊

1964年以後 國內主要大學 및 研究機關圖書館에서 계속 收書되고 있는 外國學術誌綜合目錄으로서 收錄誌數는 약 4,500種이다. 이 目錄의 發刊은 圖書館相互貸借制度의 確立과 收書政策의 轉이 될 것이다.

12) 韓國英字新聞索引 <An Index to English Language Newspapers Published in Korea, 1896—1937>

未刊

1896年~1937年間 韓國에서 發刊된 英文新聞記事索引誌로서 收錄誌는 Seoul Press, Korea Daily News等 7個誌이며 排列은 主題, 著者名, 記事等의 ABC順 混合排列이다.

13) 美國內東洋關係學者名鑑

未刊

美國內에 있는 東洋關係學者 약 3,000名의 名鑑으로 姓名, 住所 및 專攻分野를 明示하고 있다.

14) 韓國博士錄

未刊

美國의 各大學에서 授與된 韓國人 博士錄으로서 약 650名의 論文題目, 專攻科目, 授與校名 및 授與年度가 記載되고 있으며 人文科學, 社會科學, 技術科學, 自然科學, 醫學으로 區分되어 있다. 附錄으로 韓國留學生統計, 部門別 博士內譯統計와 韓國을 主題로 한 美國人博士錄이 첨부되어 있다.

15) 韓日關係索引

未刊

李朝實錄을 中心으로 한 韓日關係記事의 總索引書.

16) 韓國書畫人印藪

未刊

主로 李朝時代의 書畫人 약 750名의 印藪 약 4,000種을 收錄하였으며 傳記와 解題를 첨가하고 있다.

17) 韓國傳記資料索引

未刊

韓國人傳記資料를 各文獻에서 調査索引한 目錄으로서 收錄人名은 약 1,800名이며 本名, 字, 號, 本官, 出生地, 父名, 子名, 職位, 生年月日, 死亡年月日, 資料等を 記載하고 있다.

18) 韓國學位論文總目錄

未刊 (調査進行中)

19) 學術雜誌目次速報

未刊 (計劃中)

20) 外交史年表

未刊

以上으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書誌活動을 圖書館事業의 第一原則으로 삼다시되 도말은 國會圖書館의 書誌活動事業은 學會와 研究機關의 성원과 찬사, 나아가서는 積極的인 協力を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現時點에서 볼 때 國內에서 國會圖書館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能力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하여야 하며 이 일들은 앞으로의 國會圖書館이 가질 가장 重要한 使命의 하나이며 이는 또한 國家的인 要請이기도 한 것이다.